

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향의 조절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 and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1차원고접수: 2022.10.10. 수정원고접수: 2023.06.06. 최종게재결정: 2023.06.19.

임혜은¹ · 한세영²

¹이화여자가족연구센터, 연구위원

²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Lim, Hye Eun¹

Han, Sae-Young²

¹Ewha Child & Family Research Institute

²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향(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이 중재를 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남학생 245명, 여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세 변수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노억제와 내외통제성향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억제, 외적통제성 및 전위된 공격행동은 남녀집단 간에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으나, 내적통제성은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은 남녀청소년 모두 유의미하게 조절하였으나 외적통제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중요 변인들 간에 나타난 성차를 통해 성에 따라 취약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내적통제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자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조기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주요어 전위된 공격행동, 분노억제, 내외통제성향,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anger-in on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500 adolescents(245 boys and 255 girls) in a middle and high school of South Korea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by self-reporting.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ger-in,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and external control show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but internal control did not show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Second, anger-in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ird, internal control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ger-in and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External control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at the level of vulnerabil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in adolescents. This suggests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according to gender is needed and can infer that internal control acts as a protective factor and a buffer to reduce and prevent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 and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erefore, this study has important significance and value in that it provides a psychological mechanism for early intervention of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Keyword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anger-in, internal-external control, adolescent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며, 202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Corresponding to 한세영 (Han, Sae-Young)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evenhow@ewha.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 청소년에게서 뚜렷한 동기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화풀이식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검찰청(2020)에서 발표된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폭행이나 상해의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점점 그 강도는 세지고 있으며, 우발적이거나 동기가 미상인 상황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타인,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 약한 또래 등과 같이 주로 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1)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화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을 가하였다고 대답한 이들이 36.4%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이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없거나 동기들이 불분명하다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을 들 수 있는데, 전위된 공격행동(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은 분노를 유발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억제하였다가 해당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대상 또는 사소하면서도 모호한 촉발을 자극한 타자에게 표출하는 공격행동을 의미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적 발달단계 중에서도 내외적으로 급격하면서도 다양한 발달상의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시기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학업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그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 정서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를 수 있으나(이근배, 조현춘, 2008),

청소년은 특히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 분노를 적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분노 관리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전위된 공격행동 역시 직접적인 분노유발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초점을 돌려서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동인 만큼 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부적절한 선택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전위된 공격행동은 분노가 유발되는 그 순간에는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상황을 피하거나 속으로 비판하며 앙심을 품는 등 내적으로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분노억제(anger-in) 방식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억제하였던 분노가 다른 이에게로 향하는 과정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민희진, 박경, 2015; 서민재, 박기환, 2013;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이하나, 20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위된 공격행동은 분노를 기능적으로 발산하기보다는 분노억제와 같이 역기능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학교폭력이나 문지마 폭행과 같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위공격성의 발생과정을 설명한 이론들에는 Freud(1921)의 추동-감소이론, Dollard 등(1939)이 제시한 카타르시스 가설 그리고 Berkowitz(1990)의 인지적 신연합주의 모델(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model; CNA)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지적 신연합주의 모델은 직접적인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발생하는 사소하고 모호한 촉발자극에 의해 화풀이 형태의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보는 촉발된 전위 공격성(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의 발생과정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다. 이러한 인지적 신연합주의 이론(CNA)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 공격적 사고와 행동경향성이 하나의 인지적 연합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분노유발상황에서 공격성을 일

오키는 생체 및 심리적 반응들이 차례로 활성화되면서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복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철회하였다가 이때 발생하는 인지적 기제가 부정적인 정서 요인과 연합하게 되면서 억제하여 억눌러두었던 분노가 더욱 증폭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인 형태의 전위공격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이에 근거하여 비록 성장 과정에서 정서 기제가 손상되었을지라도 이를 인지적 기제가 중재함으로써 행동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 내외통제성향과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내외통제성향(internal-external control)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인지적 개념으로, 개인의 통제성향에 따라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Rotter, 1966). 내적통제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이 내적요인에 의해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반면, 외적통제성은 운이나 우연, 또는 타인과 같이 외부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상황에서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분노유발정도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켰으나, 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분노유발정도에 따라 타인을 향한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방향으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Mitchell & Ambrose, 2012). 즉, 대개 지위나 위계적인 힘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운 경우 직접적인 분노유발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를 억누른 상태에서 개인의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막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등 기능적인 방향으로 중재함으로써 내적통제성은 긍정적인 조절변인으로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

면 개인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채 억제하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원인을 세상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외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그 원인을 세상과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비판함으로써 개인이 가진 무력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외적통제성은 결국 억제하였던 분노를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더욱 증폭시키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중재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은 상황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나 정도에 있어 서로 상반된 신념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서로 다른 독립적인 차원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venson, 1981; Mitchell & Ambrose, 2012). 또한, 선행연구 결과(Mitchell & Ambrose, 2012)에 비추어 분노유발상황에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역기능적으로 억제할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소년이 지닌 인지적 과정에 해당하는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 각각의 수준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조절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대개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보였다(김광수, 2003; 박선영, 조용주, 2011; 황연덕, 2012). 이에 반해 여학생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억제함으로써 분노감정을 내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장혜림, 2014;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Deffenbacher & Swaim, 1999),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박수진, 2018; 서민재, 박기환, 2013; 신현경, 이승연, 2016; 이하나, 2009; 임혜은, 한세영,

2022; 황지연, 연구진, 2018). 또한, 내외통제성향 역시 성에 따라 주요하게 작용하는 내적통제성향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외적통제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Lao, Chuang, & Yang, 1977)되었던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적통제성이 더 높다고 보고(오현정, 2008)됨에 따라 내외통제성향이 성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내외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각각 다르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남녀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위된 공격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적 조건들이나 내적심리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탐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서민재, 박기환, 2013; 임혜은, 한세영, 2016; Frodi, Macaulay, & Thome, 1977), 이를 중재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절실한 가운데 인지적 접근을 통해 중재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닌 분노억제와 내외통제성향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내외통제성향인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각각 의미 있는 중재요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분노억제, 내외통제성향, 전위된 공격행동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분노억제, 내외통제성향, 전위된 공격행동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내외통제성향이 조절하는가?

2-1.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내적통제성이 조절하는가?

2-2.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외적통제성이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자기 보고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전체 500명의 설문 응답 중 연구동의서 내 학생 또는 부모 서명이 누락된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3명(중학생: 남 113명, 여 122명; 고등학생: 남 132명, 여 1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45명(49.7%), 여학생 248명(50.3%)이며, 중학생 235명(47.7%), 고등학생 258명(52.3%)으로 다소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위된 공격행동이 유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청소년 시기에도 전위된 공격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임혜은, 한세영, 2016)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인지적 발달이나 개입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이나 문제행동 등과 같은 내·외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 따라(이춘재, 곽금주, 1994) 본 연구에서는 초·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전위된 공격행동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한 전위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이하나(2009)가 번안하여 타당화를 한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K-DAQ)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8문항), 전위된 공격행동(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위공격성의 실제로 행해지는 행동요인인 전위된 공격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만 사용하였다.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난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

람들에게 화풀이 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2) 분노억제

Spielberger, Kran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덕웅, 이장호와 전점구(1998)가 번안하고 타당화시킨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노억제만 사용하였다. 분노억제에 대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속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화가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노억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내외통제성향

Rotter(1966)가 개발한 통제소재 척도(Locus of Control; LOC)를 박영신과 김의철(1997)이 한국판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내외통제성(10문항), 외적통제성(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내외통제성향에 대한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내적통제성의 경우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적통제성의 경우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주위환경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내외통제성향 .84, 내적통제성 .87, 외적통제성 .84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ewha-202011-0032-02)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조사기관을 통해 자가보고식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이 미성년자 이기에 학생과 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서면안내 및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전체 500명이 진행한 설문응답들 중 연구동의서 내 학생 또는 부모서명이 누락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향인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을 다르게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들 간에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조절변수의 각 조건값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왜

도와 침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0.46 ~ 0.84)와 침도(-0.15 ~ 0.42)는 Kline(2005)이 제안한 왜도(절댓값 3 미만) 및 침도(절댓값 10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억제는 전위된 공격행동($r = .58, p < .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내외통제성향 중에서도 외적통제($r = .29, p < .01$)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내적통제($r = -.04, p > .05$)와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표 1 참조).

2.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분노억제, 내외통제성향 및 전위된 공격행동

분노억제, 내외통제성향(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및 전위된 공격행동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분노억제($t = -2.13, p < .05$), 전위된 공격행동($t = -2.74, p < .01$), 외적통제성($t = 2.31, p < .05$)은 유의미한 집단 간 성차가 나타났다. 반면, 내적통제성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외적통제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성향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개인의 특성변인으로 내외통제성향 중에서도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M+1SD$), 하($M-1SD$) 집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검증하였으며,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1)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

전체 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분노억제($\beta = .57, p < .001$)와 내적통제성($\beta = -.19, p < .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은 전위된 공격행동을 3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분노억제와 내적통제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내적통제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6, p < .001$) 추가적으로 2%를 더 설명하였다(표 3 참조). 이를 남녀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4, 그림 1, 2 참조),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분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493$)

	1	2	3	4
1 분노억제	-			
2 전위된 공격행동	.58**	-		
3 내외통제성향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04 .29**	-.22** .21**	- .13**
<i>M</i>	1.87	1.80	2.90	2.31
<i>SD</i>	0.57	0.66	0.62	0.58
왜도	0.84	0.77	-0.46	0.46
침도	0.42	-0.09	-0.15	0.09

** $p < .01$.

표 2. 성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N = 493$)

변인		남(<i>n</i> = 245)	여(<i>n</i> = 248)	<i>t</i>
		<i>M</i> (<i>SD</i>)	<i>M</i> (<i>SD</i>)	
분노억제	-	1.81(0.59)	1.92(0.55)	-2.13*
전위된 공격행동	-	1.71(0.63)	1.88(0.67)	-2.74**
내외통제성향	내적통제성	2.91(0.64)	2.89(0.59)	-.41
	외적통제성	2.37(0.60)	2.25(0.56)	2.31*

* $p < .05$. ** $p < .01$.

노억제($\beta = .54, p < .001$)와 내적통제성($\beta = -.21, p < .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위된 공격행동을 32% 설명하였으며, 2단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역시 분노억제와 내적통제성이 전위된 공격행동($\beta = -.19,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3% 더 설명하였다. 여학생 역시 1단계에서 분노억제($\beta = .60, p < .001$)와 내적통제성($\beta = -.16, p < .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은 전위된 공격행동을 40% 설명

하였으며, 2단계에서도 분노억제와 내적통제성이 전위된 공격행동($\beta = -.11,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1% 더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분노억제와 내적통제성의 상호작용의 영향과 내적통제성 수준에 따른 상·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적통제성이

표 3.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

($N = 493$)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B	β	B	β
분노억제(A)	.65	.57***	.66	.57***
내적통제성(B)	-.21	-.19***	-.24	-.22***
A $\times$ B			-.30	-.16***
$F(df_1, df_2)$	142.519*** (2, 490)		104.921*** (1, 489)	
R^2	.37		.39	
ΔR^2	-		.02	

*** $p < .001$.

표 4.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성에 따른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

($N = 493$)

독립변인	남($N = 245$)				여($N = 248$)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β	B	β	B	β	B	β
분노억제(A)	.57	.54***	.60	.56***	.73	.60***	.73	.59***
내적통제성(B)	-.21	-.21***	-.27	-.27***	-.19	-.16***	-.20	-.17***
A $\times$ B			-.32	-.19***			-.24	-.11*
$F(df_1, df_2)$	56.624*** (2, 242)		43.621*** (1, 241)		84.632*** (2, 245)		59.067* (1, 244)	
R^2	.32		.35		.40		.41	
ΔR^2	-		.03		-		.0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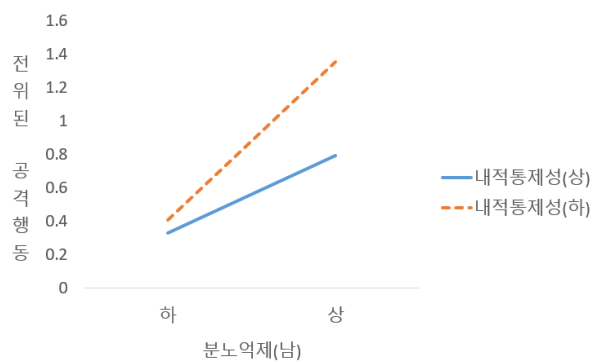


그림 1. 남자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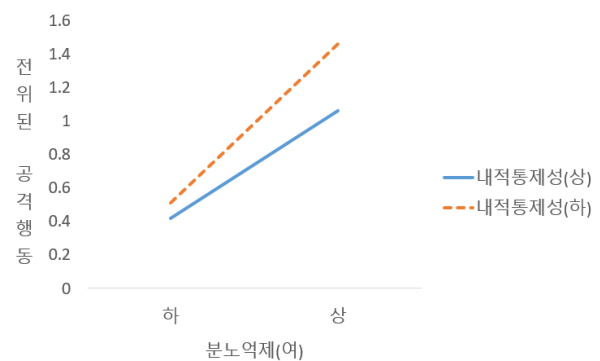


그림 2. 여자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

낮거나 높을 때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적통제성이 낮은 집단은 내적통제성이 높은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내적통제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행동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의 증가폭 또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의 증가폭이 여학생에 비해 비교적 낮고 완만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녀청소년 모두 분노억제가 높아질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은 증가하였으며,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감시킴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남녀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

전체 청소년의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

에서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분노억제($\beta = .56, p < .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통제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137$). 따라서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외적통제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외적통제성으로 인한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이를 남녀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6 참조),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분노억제($\beta = .52, p < .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통제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 = .839$).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분노억제($\beta = .58, p < .001$)와 외적통제성($\beta = .13, p < .05$)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억제와 외적통제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 = .673$). 따라서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남녀청소년 모두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

($N = 493$)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i>B</i>	β	<i>B</i>	β
분노억제(A)	.65	.56***	.65	.56***
외적통제성(B)	.06	.05	.06	.05
A × B			-.02	-.01
<i>F(df₁, df₂)</i>	122.513*** (2, 490)		81.536 (1, 489)	
<i>R</i> ²	.33		.33	
ΔR^2	-		.00	

*** $p < .001$.

표 6.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성에 따른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

($N = 493$)

독립변인	남($N = 245$)				여($N = 248$)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i>B</i>	β	<i>B</i>	β	<i>B</i>	β	<i>B</i>	β
분노억제(A)	.56	.52***	.58	.54***	.72	.58***	.71	.58***
외적통제성(B)	-.01	-.01	-.00	-.00	.15	.13*	.15	.12*
A × B			-.09	-.05			.05	.03
<i>F(df₁, df₂)</i>	46.043*** (2, 242)		30.892 (1, 241)		80.332*** (2, 245)		53.461 (1, 244)	
<i>R</i> ²	.28		.28		.40		.40	
ΔR^2	-		.00		-		.00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주요 변인들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박수진, 2018; 신현경, 이승연, 2016; 임혜은, 한세영, 2022)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분노를 내적으로 억누르면서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로써 분노유발상황에서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전위된 형태로 공격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결과에서 내적통제성은 성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남녀청소년 모두 내적통제성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적통제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결과의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를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분노를 억제하기 보다는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분노상황에서도 성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내외통제성향과 관련하여 성에 따라 인지적으로 서로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성에 따른 보다 차별화된 접근 및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 분노억제라는 부정적인 정서기제가 작동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내적통제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전위된 공격행동을 억제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공격을 철회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기제가 작동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이 유발된다는 인지적 신연합주의 모델(Miller et al., 2003)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내적통제성이 억제된 분노와 간접공격

성 또는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관계를 완화시켰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신윤희, 2010; Mitchell & Ambrose, 2012)과도 일치하였다. 즉,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에 이는 내적통제성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억눌렀던 분노를 외부로 향하는 것을 막아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전위된 공격행동을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이자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조절효과가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생시키는 분노억제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녀청소년 모두 외적통제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적통제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통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세 번째,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이 보인 기능적 역할과는 달리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차원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Levenson, 1981)를 지지하였다. 이는 즉,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함에 있어 연속선상의 양극단에서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남녀청소년 모두 외적통제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외적통제성의 주효과는 여학생에 한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적통제성이 높은 편이긴 하나 외적통제성과 같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거나 그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수록 직접적인 분노유발자가 아닌 사건과는 무관한 타인을 향해 전위된 공격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외적통제성과 같이 책임을 외부로 돌릴수록 오히려 전위된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관계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기에(Gabriel & Gardner, 1999) 직접적인 가해자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이 덜 의식해도 되는 보다 안전한 상대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남녀라는 성이 지닌 차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기에 여학생은 분노유발상황에서 분노를 방치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적응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방식으로 발산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마련되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를 통해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지닌 역할과 기능에 있어 독립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내적통제성은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이자 인지적 개입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내적통제성이 지닌 기능적 역할에 주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성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정에서 부적응적인 요인에 대해 스스로 미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요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후에는 설문이 아닌 인터뷰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이 지닌 주요한 내적요인과 행동과의 관계성을 질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 *교육심리연구*, 17(3), 393-410.
- 대검찰청 (2020). 202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민희진, 박경 (2015). 분노반추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작업 기억용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2), 391-409.
-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 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77-92.
- 박선영, 조용주 (2011).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 부모의 방치, 학대, 과잉기대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35-63.
- 박수진 (2018). 특질 전위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와 지각된 대인관계 지지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 중 고 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서민재, 박기환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 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신윤희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 오현정 (2008). 중학생의 내외통제성향,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춘재, 박금주 (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1):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임혜은, 한세영 (2022).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통해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1), 251-273.
- 장혜림 (2014).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교육부.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 척도 (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 161-181.
- 황연덕 (2012).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현방식에 있어서 부모방임행동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3(5), 37-52.
- 황지연, 연구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https://doi.org/10.1037/0003-066X.45.4.494>
-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61-69. <https://doi.org/10.1037/0022-0167.46.1.61>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Yale University Press.
- Freud, S. (1921).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NY: Boni & Liveright.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https://doi.org/10.1037/0033-2909.84.4.634>
- Gabriel, S., & Gardner, W. L.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42-655. <https://doi.org/10.1037/0022-3514.77.3.642>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Lao, R. C., Chuang, C. J., & Yang, K. S. (1977). Locus of control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8(3), 299-313.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3.
-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 Mitchell, M. S., & Ambrose, M. L. (2012). Employees' behavioral reactions to supervisor aggressio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6), 1148-1170. <https://doi.org/10.1037/a0029452>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New York, NY: Springer.